

광주신세계, 용역업체 '갑질' 혐의 피소

광주신세계백화점이 용역업체 직원을 수년간 백화점 점장의 개인 운전기사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신세계가 불공정하게 주차관리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등에 따르면 광주신세계의 주차관리 용역을 맡아 왔던 A업체는 백화점 측이 용역직원을 수년 동안 백화점 점장의 개인 운전기사로 이용했다며 제소했다.

A업체는 지난 199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주차관리 용역을 유지해오다 계약이 해지됐다.

A업체 측은 운전기사를 맡은 직원이 점장의 출퇴근은 물론 퇴근한 후 저녁식사 자리까지 수행한 뒤 귀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신세계와 A업체의 주차관리 계약에는 점장의 차량 운전기사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A업체 측은 주차관리 직원 한 명이 운전기사로 빠져 나가면서 나머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갑의 위치에 있는 신세계 측에서 운전기사 차출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냐"며 "광주신세계가 계약에 없는 운전기사를 요구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고 파견근로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A업체의 동의를 얻어 점장 운전기사를 이용했지만 상시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운전기사를 이용할 때마다 도의적인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A업체는 다른 용역업체와 차별을 받았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신세계와 계약을 맺고 있는 청소, 시설관리, 보안경비 등 다른 용역업체들은 대부분 신세계에서 퇴사한 임직원이 운영하고 있다.

광주신세계가 서비스 향상을 이유로 주차관리 용역을 입찰로 전환한 뒤 A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으나 퇴사한 임직원이 운영하는 용역업체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2015년 2월 계약 만료 전에 계약 주체인 광주신세계가 아니라 신세계 본사 직원이 운영을 포기하려고 강요했다"며 "제안을 거절하고 항의하자 뒤늦게 1년간 계약을 연장해준 뒤 용역을 입찰로 전환했고 결국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신세계는 퇴직한 임직원들이 용역업체를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

업체 "운전기사 요구하고 부당 계약해지" 주장 신세계 "동의하에 이용·적법 계약만료" 반박 공정위, 부당거래·우월적 지위남용 여부 조사

은 직원 복지차원으로 A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본사 직원이 A업체에 운영 포기를 강요한 것이 아니고 계약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개입찰로 전환했다는 것을 고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A업체에 서비스 개선을 요청했는데 시정되지 않아 변화를 주기 위해 입찰로 전환했다"며 "향후 지역업체와 상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광주신세계가 용역 회사들과의 거래에서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는지 여부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운전기사를 이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내부거래와 우월적 지위 남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공정위가 경고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조인호 기자



울산을 방문한 천연기념물 '황새' 천연기념물 제199호 이자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황새 한 마리가 12일 울산시 대하강 하구에서 한가로이 기닐고 있다.

광주·전남 보행로 없는 초등학교 100곳 육박

광주·전남에서 보행로 없는 초등학교가 100곳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보행로 미설치 초등학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6052개 초등학교 중 보행로 없는 학교는 30%인 1818개교에 달했다. 총길이는 523km에 이른다.

광주의 경우 전체 156개 초등학교 중 12개교에 보도가 없어 보행로 미설치율이 7.7%에 달했다. 전남은 419개교 중 85개교(20.3%)에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았다.

보행로가 없는 구간의 총길이는 광주가 1.8km, 전남은 20.6km에 달했다.

17개 시·도 평균 미설치율(30.0%)에 비하면 광주·전남 모두 양호하지만, 학교수로 따지면 100곳에 육박해 대책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최근 5년(2012~2016) 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광주 109건, 전남 106건에 사망자만 2명이나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보행로 확보는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매년 전국적으로 500건 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 지도읍 주민자치센터 철거 결정

우측으로 3~5도 기울어

신안군의 한 주민자치센터가 기울어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지도읍 주민자치센터가 우측으로 3~5도 기울어 위 부분이 옆 건물과 붙어 버렸다.

지난 1984년 건축된 이 건물은 지난 2010년 기울고 곳곳에 금이 생겨 임시가동 2개를 세웠다.

이 곳은 최근까지 1층(198㎡)은 헬스장과 풋볼씨 교실, 2층

(98㎡)은 회의실로 활용했다.

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19일까지 운동기구 등 집기를 모두 빼낸 뒤 건물 주변에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선 일대 부지는 갯벌을 매립한 곳으로 군은 안전진단을 통해 건물 철거를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건물 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안=박응식 기자

北 기아지수, 119개국 중 27위... '심각단계'

북한의 기아지수가 '심각단계'로 세계 119개국 중 2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등이 발표한 '2017 세계기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기아지수는 28.2점으로 지난해 21점에 비해 7.2점 올랐다.

IFPRI, 컨설팅회사인 월드비전 등이 2006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세계기아지수는 영양결핍, 허약아동, 발육부진아동, 영유아사망률 등의 네 가지 지표를 근거로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35점 이상이면 위험단계에 해당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기아지수는 21.8점으로 지난 2000년 29.9점보다 8.1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영양결핍에 시달린 사람의 비율은 2000년 18.2%에서 13.3%로 감소했으며,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역시 8.2%에서 4.7%로 줄어들었다. 5세 미만의 허약아동 비율도 9.9%에서 9.5%로 개선됐다. 만성영양결핍을 나타내는 5세 미만 발육부진 아동 비율은 37.7%에서 27.8%로 낮아졌다.

하지만 부룬디(56.6%), 에리트리아(53.3%), 동티모르(50.2%)에서는 만성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국가 중 기아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50.9점을 기록했다. 기아지수가 위험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는 ▲차드 43.5점 ▲시에라리온 38.5점 ▲마다가스카르 38.3점 ▲잠비아 38.2점 ▲에맨 36.1점 ▲수단 35.5점 ▲라이베리아 35.3점 등 총 8개국이다.

베트남 북부·중부 폭우로 77명 사망 실종

베트남 북부와 중부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지금까지 37명이 숨지고 40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재해 당국이 12일 밝혔다.

국가재난예방대책 중앙통제위는 이날 지난 나흘간 북부와 중부에 쏟아진 호우로 이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중앙통제위에 따르면 사망 실종자 외에도 21명이 다치고 가옥 1만6700채가 침수됐으며 제방 2곳이 파손되면서 농경지 3만8000여 ha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4만 마리와 가축 1200두가 폐사했으며 산사태로 많은 국도가 막히거나 끊겼다고 한다.

사망자 37명 가운데 11명은 북부 호이빈 성에서 변을 당했으며 북부 응예안 성과 중부 타인호아 성 각각 8명, 북부 손라 성 5명, 북부 엔바이 성 4명, 수도 하노이 1명의 피해가 났다.

실종자 40명은 손라 성과 엔바이 성, 호이빈 성, 타인호아 성, 중부 광트리 성에서 생겼다.

호이빈 성 탄타 지수에서는 산사태가 가옥 4채를 덮쳐 18명이 매몰됐다. 이중 8명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구조대가 계속 행방불명자를 수색하고 있다.

영국 정부, 인터넷 증오세 도입 방침

영국 정부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증오범죄 피해자 지원 자금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CNN머니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일명 '인터넷 괴롭힘 세금(bully tax)'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는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캐런 브래들리 문화장관은 BBC와 인터뷰에서 "이 세금 부과 대상은 주로 소셜미디어 기업과 이동통신사로 할 예정"이라며 "처음엔 자발적 조치로 시작하겠지만, 자발적 조치가 효과가 없으면 정부는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은 좋은 일에 놀라운 힘을 발휘하지만, 고통도 초래하고 있다. 어린이 등 취약자들에게 특히 해로운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정 기업 지명, 세금 적용 방법, 세금 부과 액수 등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브래들리 문화장관은 이 세금은 인터넷 도박 중독 방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도박회사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과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페이스북은 성명에서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 정부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도 성명에서 이 세금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악의적 내용의 계정 삭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사람중심·생명존중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당신의 작은 배려가

선진 교통공동체를 만듭니다!

-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사용'
-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하기'

